2012학년도 수능 어떻게 바뀌나

수리 나형(인문계) 미적분 추가

교육과학기술부가 15일 발표한 수능 체제 개편안에 따르면 2012학년도부터 수능 탐구영역의 최대 선택과목수가 현행 4과목에서 3과목으로 줄고 수리 나형에 '미적분'이 추가되는 등 수리 출제범위는 확대된다. 수능 과목을 줄여 수험생들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이지만 응시과목수는 1과목 줄어드는 대신 수리영역 출제범위는 확대돼 오히려 학습부담이 커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만만치 않았다.

수리 가형 3개 선택서 2과목 필수로

출제범위 확대로 학습 부담 늘 수도

◇탐구 응시과목 1과목 줄어=당초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했던 수능 응시과목 축소안은 탐구와 제2외국어·한문 영역을 합쳐 응시과목수가 2과목을 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었다.

수능 응시과목수를 현행 최대 8과목(언어, 수리, 외국어 3과목에 탐구 4과목, 제2외국어·한문 1과목)에서 5과목으로 3과목이나 줄이는 파격적인 안이었다.

교과부는 그러나 검토 과정에서 탐구 및 제2외국어·한문의 응시과목을 너무 줄일 경우 국·영·수 위주의 학습이 심화되고 탐구, 제2외국어·한문에서 선택하지 않는 과목은 교육과정 파행이 우려되는 등 부작용이 크다고 판단했다.

교과부가 내놓은 개편안은 인수위안을 보완한 것으로서 탐구영역은 응시과목수를 3과목으로 축소하고 제2외국어·한문은 현행대로 유지하는 안이다. 이렇게 되면 전체 수능 응시과목수는 현행 8과목에서 7과목으로 1과목 줄어들게 된다.

◇수리 영역 출제범위 확대=지난해 2월 개정고시된 교육과정안에 따라 수리 영역의 출제범위는 현행보다 확대된다.

자연계 응시자들이 주로 선택하는 수리 가형의 경우 현재 '수학I', '수학II' 두 과목에 '미분과 적분', '확률과 통계', '이산수학' 등 3개의 선택과목 중 1과목을 선택하게 돼 있으나 2012학년도부터는 3개 선택과목이 없어지고 '적분과 통계', '기하와 벡터' 두 과목이 필수로 지정된다.

배우는 내용으로 보면 '미분과 적분', '확률과 통계', '이산수학' 등 3개 선택 과목에서 '이산수학' 관련 내용은 출제 범위에서 아예 제외되고 '미분과 적분', '확률과 통계'는 '적분과 통계'에 합쳐지는 것이다.

'기하와 벡터'는 수학II에 들어있던 내용을 별도 과목으로 독립시킨 것으로 기존의 수학II 내용과 비교해 '일차변환과 행렬' 관련 내용이 새로 추가된다.

인문계 학생들이 주로 응시하는 수리 나형은 지금까지는 '수학I'만 출제범위에 포함됐으나 '수학I' 외에 '미적분과 통계기본'이 새로 포함된다. 제7차 교육과정이 적용된 2002학년도부터 인문계 학생들은 수학에서 미적분을 배우지 않았었으나 이번 개편으로 인문계 미적분이 부활하게 되는 것이다. '미적분과 통계기본'은 고교 2학년 과목이므로 현재 중학교 3학년생이 고교 2학년이 되는 2010년부터 인문계 응시자들도 미적분을 배우게 된다.

◇수업 부담 완화될까=교과부는 이번 개편으로 탐구영역에서 수험생들의 학습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수리 출제범위 조정으로 학생들의 수학 능력 저하 등의 문제점이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교과부는 보고 있다.

현재는 수리 가형의 이수단위가 수리 나형에 비해 지나치게 많고 출제범위도 훨씬 넓기 때문에 이공계 지원자들조차 가형이 아닌 나형을 선택해 응시함으로써 대학에 진학했을 때 전공 수업에 적응을 못하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하지만 수능 응시과목수는 전체적으로 1과목 줄어드는 것에 불과하고 대신 인문계 학생들은 그동안 배우지 않던 미적분을 새로 배워야 하며 자연계 학생들도 '적분과 통계', '기하와 벡터'를 선택이 아닌 필수로 배우게 되는 만큼 학습 부담 경감 효과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오히려 고교의 수학 수업시간이 늘어나고 수능 출제범위가 확대되면 그만큼 초·중·고교의 교육과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사교육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교과부 이걸우 학술연구정책실장은 "인문계 미적분의 경우 기초수준의 내용이고 수리 가형도 기존에 배우던 것을 별도 과목으로 뺀 정도이므로 내용상 추가되는 것은 별로 없으며 학습 부담도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2012학년도 수능체제 개편안

응시과목수

	현행	개편
응시영역 및 과목	-언어영역 -수리영역 -외국어(영어)영역 -사회탐구영역(11개 과목 중 최대 택4) 또는 과학탐구영역(8개 과목 중 최대 택4) 또는 직업탐구영역(17개 과목 중 최대 택3) -제2외국어·한문영역(8개 과목 중 택1)	-언어영역 -수리영역 -외국어(영어)영역 -사회탐구영역(11개 과목 중 초대 택3) 또는 과학탐구영역(8개 과목 중 최대 택3) 또는 직업탐구영역(17개 과목 중 최대 택3) -제2외국어·한문영역(8개 과목 중 최대 택1)
최대 응시과목수	8개	7개

수리 출제 범위

	현행	개편
수리가형	수학 I 수학 II 미분과 적분, 확률과 통계, 이산수학 중 택1	수학 I 수학 II 적분과 통계, 기하와 벡터 2과목 모두 필수
이수단위	20	24
수리나형	수학 I	수학 I 미적분과 통계기본
이수단위	8	12

어르신들의 아리랑 춤 15일 광주시 서구 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2008 E-Happy Festival'에 참가한 '우리 춤 기초반' 소속 노인들이 진도아리랑을 부르며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뽐내고 있다. 서구 노인복지회관 주최로 열린 이번 행사에서는 복지회관 소속 노인 12개 팀이 참가해 작품발표회를 가졌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광주 광엑스포' 시민참여 축제로

'시민 파빌리온' 주요 전시관에 포함…참가자 모집

'2009 광주 세계 광(光)엑스포'(2009년 10월 9일~11월 5일)가 시민·지역 작가들이 참여하는 시민축제로 치러진다.

(재)2009 광주 세계 광엑스포는 "광 엑스포를 시민 참여형 행사로 진행하기 위해 '시민파빌리온'(전시관)을 주요 전시관에 포함시켰다"고 15일 밝혔다.

시민 파빌리온은 광 엑스포 행사장인 서구 치평동 상무시민공원 일원에 설치되며 모두 30여개 컨테이너를 쌓거나 잇댄 설치 작품으로 제작된다.

공모를 통해 선발된 시민들과 지역 작가 등의 합작품으로 꾸며지는 시민 파빌리온은 ▲빛 그림자 인형극 ▲빛 도서관 ▲빛의 마술 ▲빛 바디 페인팅 ▲빛고을 카페 등 빛을 주제로 한 체험공간으로 구성된다.

지역 작가들은 ▲빛의 화가 우제길과 함께하는 빛 그림 벽화 그리기 ▲빛의 소망 날리기 ▲태양광 만들기 ▲생태 미술체험 등을 기획하고 구성한다. 참여 예정 작가는 우제길, 손봉채, 이이남씨 등 빛과 광원을 주제로 작업하는 지역 화가들이다.

광 엑스포 재단은 이를 위해 17일부터 내년 1월19일까지 2009 세계 광엑스포를 총괄할 전시커미셔너를 공모한다. 또 시민 파빌리온 참가 단체, 시민들을 모집할 계획이다.

전시 커미셔너는 시민 파빌리온 전시 내용을 기획하고 구체적인 시민 참여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전시를 총괄하게 된다. 미디어 아트 또는 빛을 소재로 한 작품의 전시기획 경험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응모 가능하다.

홍진태 광엑스포 사무총장은 "시민들과 함께하는 엑스포를 치르기 위해 시민 파빌리온 전시관을 마련했다"며 "시민 파빌리온은 문화와 예술이 빛과 결합하는 새로운 공간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문의 062-611-3763, 611-2962. /윤영기기자 penfoot@

생보자·유공자 등 도시가스 요금 12% 할인

내년 1월 1일부터 광주시내 기초생활 수급자, 장애인, 국가 유공자 가정의 도시가스 요금이 12% 할인된다. 경감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와 1~3급 장애인,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독립유공자 등이다.

대상자는 '도시가스요금 경감신청서'와 증명서(장애인 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5·18 민주유공자증, 독립유공자증) 사본을 준비해 ㈜해양도시가스에 해당서류를 제출하면 내년 1월부터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도시가스 요금 할인금액은 1㎥당 81원으로 소매 요금기준 12%가 할인돼 1가구당 연간 7만3천원의 연료가 절감이 예상된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